지역 소식통

정읍시, 9월까지 K-패스 환급 혜택 한시적 확대

정읍시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K-패스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 후 K-패스 앱이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먼저 출퇴근 시차 시간대인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일괄적으로 30%포인트 오른다.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도 낮아진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일반형의 경우 일반 2만5000원, 청년과 어르신 및 2자녀 가구 2만1000원, 3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1만7000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요금이 3000원 이상인 플러스형은 일반 4만5000원, 청년과 어르신 및 2자녀 가구 4만원, 3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3만5000원을 초과 시 환급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립도서관, 독서 문화 공모사업 추진

부안군립도서관은 어린이부터 장애인,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계층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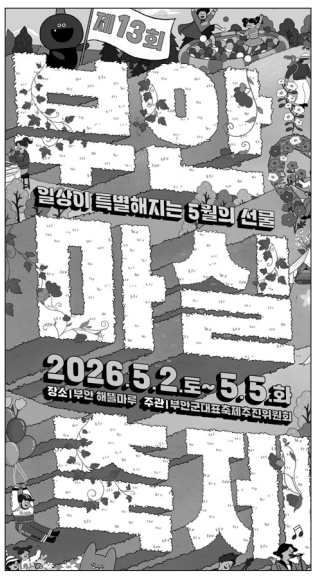
올해는 AI 요소를 접목한 활동을 더해 확장된 디지털 창의교육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과 탐방을 연계해 중장년층의 삶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제공기관 '모네'와 협력해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은 내달 참여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마실축제 5월 2일 '팡파르'

가수 피프티피프티·황가람·진성 등 출연… 불꽃놀이·골드바 추첨 등 이벤트 다채



부안군은 지역 대표 축제인 제13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일상이 특별해지는 5월의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관람형 행사를 넘어 지역 상권과 상생하고 전 세대가 화합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축제의 포문을 여는 오는 5월 2일 개막식에는 글로벌 아이돌 피프티피프티와 임창정, 에녹, 소명 등 화려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열기를 올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5월 3일에는 록 밴드 체리필터의 공연이, 4일에는 황가람과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및 뮤지컬 갈라쇼가 감동을 선사한다.

어린이날이자 폐막일인 오는 5월 5일에는 뽀로로 싱어롱쇼와 함께 진성, 김태연, 안성훈 등 최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대미를 장식하며 개·폐막일 밤하늘을 수놓을 대규모 불꽃놀이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관내 상권과 축제장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부안몬 프렌즈 카드형 골드바 6개와 기아 모닝 차량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 캡슐 자판기로 지역 맛집을 연결하는 '부안.ZIP'은 축제의 활기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안몬 자연놀이터, 로컬푸드 팜파티, 환상적인 야간 경관 조명 등 낮부터 밤까지 빈틈없는 즐길거리가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운곡람사르습지를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한 '오베이골 마을장터'를 개장했다.

운곡람사르습지 '오베이골 마을장터' 개장

매주 금요일 고인돌박물관 앞에서… 지역 홍보·농산물 판매 등

고창군이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운곡람사르습지를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한 '오베이골 마을장터'를 개장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오베이골 마을장터'는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의 일환으로, 11월까지(8월 휴장)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고인돌박물관 앞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주요 판매 품목으로는 △주민 가공식품(식혜, 오란다, 떡, 복분자 주스 등) △제철 농산물(수박, 고들빼기 등) △업사이클링제품(유리공방, 수공예품 등) 등이다.

특히 송암마을 오베이골 농원의 김치와 용계마을의 쑥떡 인절미, 식혜 등은 몇 년째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단순한 판매 장터를 넘어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역활동가들이 주도하는 리사이클 마켓과 환경 프로그램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중고 제품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나눔장터도 운영돼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창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터 운영을 위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증 비치 및 위생 교육 확인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확실히 마무리 할 것"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 동학 무장기포 기념일 맞아…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도 약속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일(4월25일)'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마무리와 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아내겠다"고 공약했다.

1894년 4월25일 고창군 공음면 구수내 무장기포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권력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중의 권리와 나라의 자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위대한 민중항쟁이다. "사람이 하늘이다"는 동학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공동체의 가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고 있다.

민선 8기 고창군은 '무장포고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개관', '군청 앞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등을 통해 고창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심덕섭 후보는 "무장기포지(무장기포역사관, 당산나무 광장, 역사공원 등)와 전봉준장군 생가터를 정비하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확실히 마무리 하겠다"며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역사 문화 중심지로서 더욱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도 약속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 항쟁이자 근대 민주주의 운동의 출발점이다.

그 정신은 이후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으로 이어졌다.

심덕섭 후보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상생 공동체를 향한 투쟁으로 민의 시대, 국민주권시대의 기원이 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조속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맞춤형 돌봄 강화 위한 협약 맺어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지역특화서비스 기관 10곳과 맞손

정읍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맞춰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3일 지역특화서비스 3종의 제공 기관 10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시는 보건복지부 예산 5억 9000만원을 활용해 정읍시에 맞는 지역특화서비스 10종을 개발했다.

현재 방문 건강운동 서비스 등 7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방문 목욕, 틈새 요양 돌봄, 방문이·미용 서비스 3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협약 기관은 방문 목욕 장기요양기관 3곳, 틈새 요양 돌봄 장기요양기관 3곳, 방문 이·미용 미용업소 4곳이다.

방문 목욕과 틈새 요양 돌봄은 홀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대상자 등에게 제공된다.

방문 목욕은 차량을 이용해 월 2회, 틈새 요양 돌봄은 가사와 신체 활동을 월 20회(1회 2시간) 지원한다.

방문 이·미용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을 찾기 어려운 대상자의 가정을 미용사가 직접 방문해 월 1회 머리 손질 위주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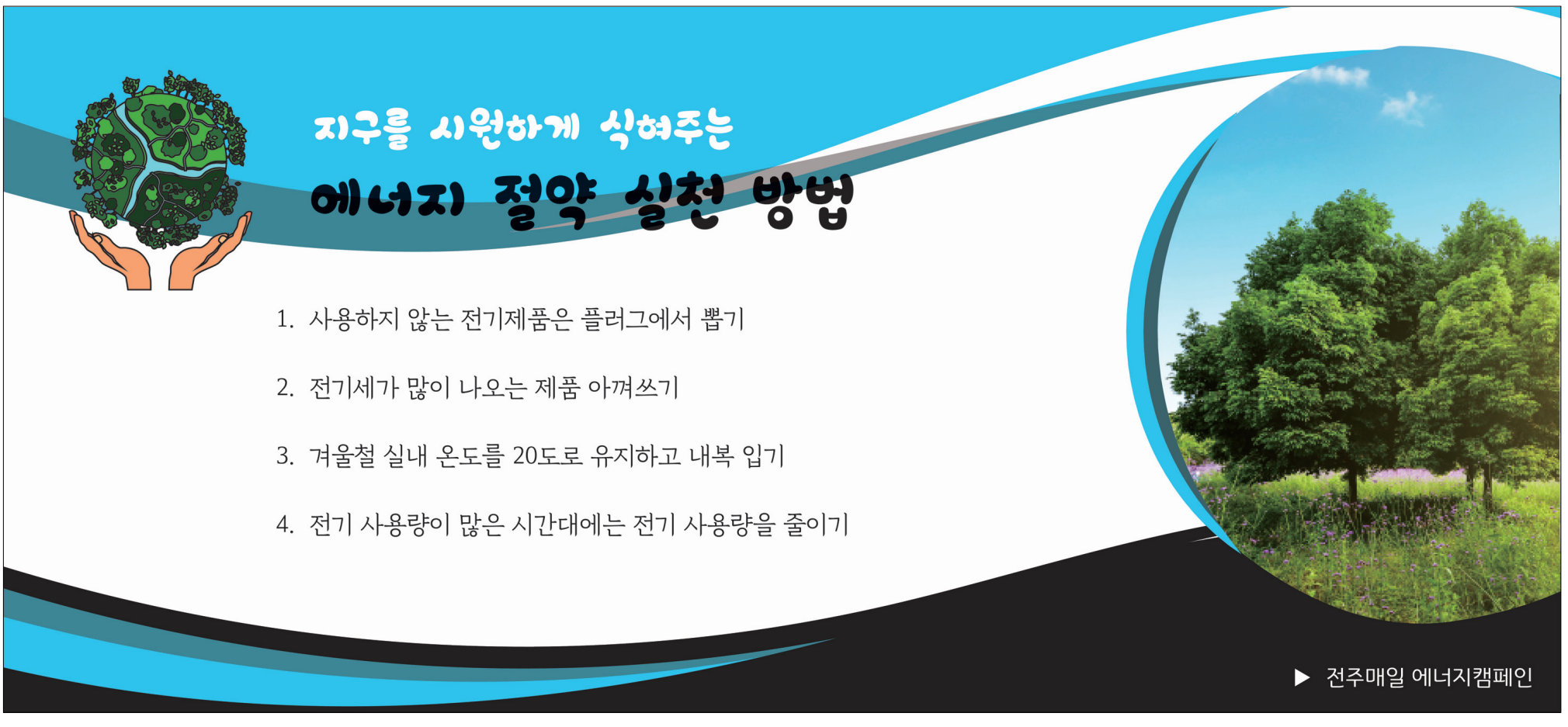
앞서 시는 지난 4월 초에도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신태인읍 동인한의원(방문 한의 서비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정리 수납 서비스), 한서요양병원(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3곳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포함해 시는 방문 의료, 장기요양, 주거,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28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중점사업 완성도 높인다… 부서 간 장벽 깬 '핵심 소통회의' 개최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중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축적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시정 운영의 핵심 동력이 될 국별 중점 사업 2건씩을 선정해 사업별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점검 사업으로는 농생명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햇빛소득마을 조성,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추진 주요 사업과 시설 개관 현황, 각종 수상·공모사업 성과, 국가 예산 확보 사업 등을 전 부서가 공유하며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